

## 코로나 사태에 명동도 '유령상가'



▲ 인적이 끊긴 명동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itbc 화면 캡처

한국 주택시장은 전세난이 심각한 현실이지만 주요 상권의 가게들도 비어 있는 '유령상가' 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자 아예 가게를 빼는 상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표 상권인 명동 거리도 예외가 아니다. 고개만 돌리면 거리 곳곳에 임대로 나온 상가가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명동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이처럼 대표적 상권인 명동 거리의 상가들이 속속 문

을 닫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집밖에서 쇼핑하는 사람이 줄고, 해외관광객의 발길마저 끊긴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다.

장사가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노른자위' 인 1층 상가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졌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유령상가' 느낌이 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서울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1층은 대부분 비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실률) 한 60~70%? 작년에는 공실이 거의 없었고 올해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고 말했다.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임대료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는 많지 않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발 소비침체가 풀릴 때까지 상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 등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다주택자 1년 새 9만 명 증가



▲ 다주택자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shutterstock

한국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등 다주택자 규제에 나섰지만, 다주택자들이 1년 새 9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주택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자산을 기준으로 상·하위 격차가 41배까지 벌어졌다.

17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천433만여 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2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1주택자는 천205만여 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천 명 늘었다. 3채 다주택자는 29만3천명, 4채 7만6천명, 5채 이상은 11만8천 명으로 집계됐다.

2채 이상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9%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4년 1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 추세이다.

가구별로 보면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다주택 가구는 316만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8만7천 가구 늘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시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제주 서귀포시로 21%가 넘었다. 주택 보유자 5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15.4%인 40만 채가 외지인 소유로 7채 중 1채를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1년 전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11억 원으로 하위 10% 평균 집값의 4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시세로 환산한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녀 10명 중 6명 "결혼 않고 동거할 수 있다"

한국의 13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 없이도 동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을 꼽은 사람은 2년 전보다 11배나 늘었다.

18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오후 5월 13~28일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9.7%였다. 이 비율은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0%, 2018년 56.4%로 늘어나다 올해에는 60%에 육박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였다. 이 역시 2012년 22.4%, 2014년 22.5%, 2016년 24.2%, 2018년 30.3% 등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더 늘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1.2%로 2년 전보다 3.1%p 늘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였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2.5%로 2년 전보다 3.4%p 늘었다. 그러나 실태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그쳤다. 남편 중 20.7%, 아내 중 20.2%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32.8%가 '신종질병'을 꼽았다. 2018년에는 신종질병으로 응답한 비중이 2.9%로 가장 낮았는데, 2년 만에 약 11배로 된 것이다.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 주택, 아파트, 상가, 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로스 알라미토스**  
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내 인접 프리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  
**\$795,000**

**산타애나 4유닛**  
방3 화2 / 방2 화2 Garage, 1977년생 수입 \$79,200  
**\$1,195,000**

**시터 오브 오렌지 4유닛**  
방2 화2 / 방2 화1 Garage, 1979년생 수입 \$79,200  
**\$1,280,000**

**오바린다 3유닛**  
방3 화2 Garage, 2006년생 수입 \$100,800  
**\$1,999,000**

**부에나팍 3유닛**  
방3 화2 / 방1 화1 1971년생 수입 \$58,672  
**\$1,100,000**

**애너하임 3유닛**  
방3 화2 / 방2 화2 Garage, 1976년생 수입 \$54,000  
**\$950,000**



**애너하임 단층집**  
방3 화2.5 1,751sq 최고학군 좋은 동네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나무, 교통편리 공원, 상가, 차고뒤에 방, 화장실 있음 인컴 창출 포텐셜  
**\$735,000**

**애너하임 6유닛**  
방2/1 화1 대지 9,148 sq 월 인컴 약 \$8,545  
**\$1,399,000**

**로스 알라미토스**  
방4 화2 좋은 학군 건평 1,844sq  
**\$999,000**

**애너하임 4유닛**  
방2/1 화1 월인컴 \$7,912 파킹5대  
**\$1,295,000**

**부에나 팍 3유닛**  
방2 화1 월인컴 약 \$4,400  
**\$850,000**

**터스틴 4유닛**  
방3/2 화2/1 월인컴 \$7,198  
**\$1,425,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